

서는 안된다고 웅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7-80년대에 사회간접자본이나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보여 줬던 강력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힘은 예전과 같지 않은데 혹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기간산업을 아직까지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운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이용자 저변확대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PC통신이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PC통신이란 서비스 자체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뿌리가 BBS(Bulletin Board System)인 만큼 데이터베이스 위주라기 보다는 통신위주의 사업이다. 현재 국내의 각 PC통신이 데이터베이스와 BBS간의 사용비율 2:8이란 숫자가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4대 PC통신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3천여개에 달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정보제공업체(IP) 역시 2천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Instant데이터베이스이고 이익을 남기는 데이터베이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IP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라 좋

은 정보를 만들어 놓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

그래서 이런 IP들은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 PC통신사업자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PC통신사업자 역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불가능할 뿐더러 썩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된다. 데이터베이스란 그 특성자체가 많은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 투자금액을 회수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IP의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정보통신부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지만 공정성, 실효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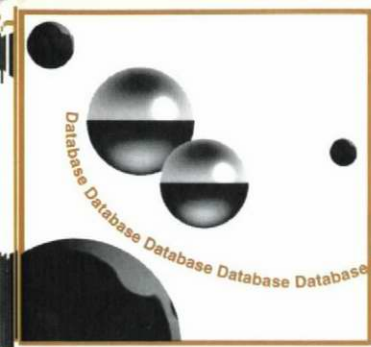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운영 개선이 절실하다. PC통신사업자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실현성이 부족한 직접적인 IP지원을 통한 방법보다는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개발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훨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용자층의 확대도 절실

그리고 현재 BBS 위주의 서

비스를 데이터베이스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PC통신 이용자의 연령층을 지금보다 10살 이상 올릴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국내 PC통신 서비스는 10대 및 20대 초반이 주도를 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올해 들어 국내 PC통신이용자는 갑자기 정체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까지는 10대 및 20대 시장을 중심으로 팽창해 왔지만 올해 들어 이제는 그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군대에 가거나 직장을 가지면서 일정 부분이 빠져 나가고 대신에 그만한 부분이 밑에서 부터 들어와 올해들어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작년 말 부터 가입자 증가속도가 급속히 느려진 것이다. 따라서 BBS를 주로 이용하는 10대 및 20대 초반의 이용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20대 후반 및 3-40대 이용자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구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이들은 졸업, 취직, 결혼, 출산, 이직, 이사 등 주변 환경변화가 매우 많은 특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절실히 요구됨)나 전문데이터베이스



특집



4. 정보이용 저변화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

개발도 힘쓰야 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PC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접근경로 정비작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40대 이용자층의 저변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0대 및 20대 그룹에서 빠져나오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 서서히 저변을 넓혀나가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PC통신사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겠다.

결언

이상을 정리해보면 데이터베

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PC통신 서비스의 역할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잠재시장을 열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IP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PC통신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PC통신으로 인해 유발되는 수백억의 자금(사실 전화 수요가 거의 없는 야간에 집중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설비증설의 부담이 없는 일종의 낙전수입이나 다름없는 수익)을 PC통신사업자의 통신원가 부담을 덜어 주는데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제안해 본다.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향후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산업의 꽃이 될 데이터베이스개발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야 할 때인 것을 알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MC**



〈 그림 1 〉 국내 PC통신시장의 성장 모형

